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하 수 권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면 이제 사회 모든 것에서 양과 더불어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여야 한다. 더 많이 보다는 더 나은, 더 바람직한, 더 적합한 것을 찾아야 한다. 대학교육도 이제 교육의 질적 향상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단기간에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했는데 그 원동력이 교육에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세계인이 놀라는 이 성장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설득력이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배 부르고 남을 만큼 음식을 장만할 능력은 되는데, 자타가

이슈진단 및 분석

인정하는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지닌, 참으로 감칠 맛 나는 음식을 만들 능력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과 같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정도의 대학진학률을 보이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질 높은 대학교육은 아직 미래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대학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바로 대학교육의 질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취업률이 대학교육의 질을 보장하는가?

취업이 잘 되는 대학에서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까? 표면적으로는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진학을 포함한 취업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성취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평가 지표에 사용되는 취업률을 기준으로 삼아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을 결정한다면 재고의 여지가 생긴다. 지표 자체가 이미 양적인 기준으로 결과 지향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취업의 질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다만 외부에서 대학을 평가할 때 지나치게 취업률이 몇 퍼센트냐에 중점을 두면 과정보다는 결과에 치우치게 될 위험이 크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성과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할 가능성이 많다.

높은 취업률은 교육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좋은 결과를 산출하게 된 교육 및 취업관리 시스템을 함께 기술하도록 하고 그것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

취업의 질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 가지는 고려할 만하다.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역량, 환경 등이 취업에 얼마나 고려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취업결과 이전 단계인 진로지도와 취업상담 및 취업교육이 얼마나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차별화된 특성화 정책 필요

서양에 비하여 집단주의적 문화 속성이 강한 우리나라에 다양성보다는 통일성, 획일성이 더 선호된다. 입시생들이 대학과 전공을 선택할 때도 자신의 판단 기준보다는 사회적 판단 기준을 우선시하고, 이 사회적 판단 기준이 아직은 상당히 획일적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이제 모방과 재생산이 아닌 창의와 창조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학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창의 창조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획일성 타파다. 그 대안이 바로 다양성이고 대학교육의 다양성은 대학의 특성화로 달성될 수 있다. 교육부가 이 문제를 중요시 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아직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학특성화사업이나 여

타 대학 지원 사업들이 국내 대학들의 특성화와 다양성 구현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정책 방향에서는 다소 분명한 목표설정이 미흡한 것 같다. 피할 수 없는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특성화를 통한 다양성 확보가 반드시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위기 상황이 대학의 진정한 체질 개선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근래에 우리보다 먼저 대학구조조정을 실시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는 책을 읽고 특성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엿보았다. 나카지마 미네오씨가 집필한 『기적의 대학 - 국제교양대학은 어떻게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는가』(2012, 신현정 옮김)이 바로 그 책이다. ‘국제교양대학’은 2004년에 개교한 신설 대학으로 기존의 대학교육 시스템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특성화된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학사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입학시장에서 전통 명문인 도쿄대에도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 ‘엄격하지만, 확실한 학력을 갖게 하는 대학’으로 인식되어 취업시장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ACE사업 지속 지원 필요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ACE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대학들이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경쟁하고 있으며, 선택된 성공적인 교육시스템들이 공개되어 다른 대학들이 그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 적어도 전체 대학의 40% 정도는 이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각 대학의 특성화된 교육시스템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지원받은 대학들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재평가를 통하여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대학교육의 지속적인 질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엄격한 학사관리 및 인증제 도입

지난해 교육부는 대학가에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던 재수강, 학점 포기, F학점을 포함하지 않은 증명서 발급 등을 통한 ‘학점 세탁’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양한 편법을 통한 학점 인플레이션이도를 넘어 대학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신력이 땅에 떨어지고, 공정한 경쟁 원칙이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의 질 관리는 엄격한 학사관리를 전제로 하는데 이것은 각 대학이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교육부가 요구하고 각 중 대학평가의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선하기 전에 대학의 가치와 신용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대학은 자신이 특화된 영역에서 교육의 품질을 인증하는 인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이 또 하나의 평가 시스템이 되어 모든 대학에 적용하는 획일화된 정책이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다양성과 자율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슈진단 및 분석

장기적으로 보아 바람직하지 않다. 이 보다는 각 대학이 자신의 브랜드를 입증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것을 사회에서 인증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스승의 가치 되찾기

지금까지 살펴본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들은 대학의 구조개선이나 대학교육 지원 정책 개선과 관련이 있다.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내적 가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스승의 가치 되찾기'이다. 사회적 구조와 가치 변화와 더불어 사제 간의 관계도 많이 변하고 있다. 대학교수들은 항상 새로운 더 젊은 세대를 맞이하면서 자신은 더 나이가 든다. 그래서 교수들이 사고와 사회활동을 멈추면 더 이상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가 힘들다. 더구나 요즘처럼 대학의 구조조정 열풍 때문에 젊은 학문 후속 세대의 충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나이 든 스승이 젊은 제자를 이해하려면 우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것과 연구 활동만으로는 젊은 세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포용하기 힘들다. 교실 밖에서 학생들과 더 많은 교류를 하여야 한다. 마치 자신의 자식들과 함께 놀아주는 부모처럼 학생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활동에 교수들이 동참할 필요가 있다. 아쉬운 것은 최근에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학생 행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교수와 학생들이 체험하며 교감할 수 있는 장이 크게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 걱정스럽다. 어쩌면 대학 내에서 체험형 교양수업 과정에 이러한 가능성을 창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수와 학생이 함께 수강하는 교양교과목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필자소개

하수 권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경북대학교 독일어교육학과, 독일 빌레펠트대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독일어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독어독문학 교육학회 회장,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처장 및 교무처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EU지역통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Tandem 학습법 적용 외국어 학습자료 특성과 유형」, 「자기주도학습 기반 외국어교육에 학습상담 기법 도입 방안」 등이 있으며, '이중언어학습법의 교육과정 및 수업 적용 방안' 외 다수가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외국어교육, 기업문화, 대학평가 등이다.